

#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 Show

신년특집  
1/2월호

2022 January/February  
Vol. 599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발길 머무는 골목길  
골프에 반하다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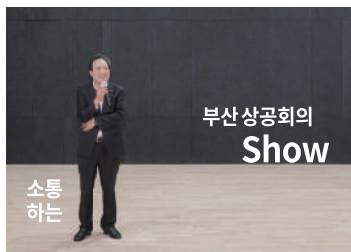
## INTRO

### 04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부산상공회의Show

### 06

발간사



발행일 2022년 2월 7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인쇄·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의에 게재되는 각종 기사는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CEO 취향저격

### 08

발길 머무는 골목길  
부산을 거닐다 '부산포개항가도'



### 12

골프에 반하다  
미리 떠나보는 '사이판 골프여행'  
골프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골프를 만나다'



### 16

CEO의 단골 맛집  
42년의 역사 '화국반점'

### 18

가객의 인문학  
<서른 즈음에>가 매년 소환되는 이유

## ZOOM in BCCI

### 20

Story of 캡틴 장



### 22

Together with 2030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원대한 도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 26

기업포커스  
대원플러스그룹



### 30

Look at Me  
스타트업 '상영마그네트'



## 트렌드 TALK

### 34

Do You Know MZ?

## 경제 KEYWORD

### 36

기업인을 위한 2022 경제키워드

### 38

ESG 리포트

### 40

CEO를 위한 경영&경제 추천도서

### 42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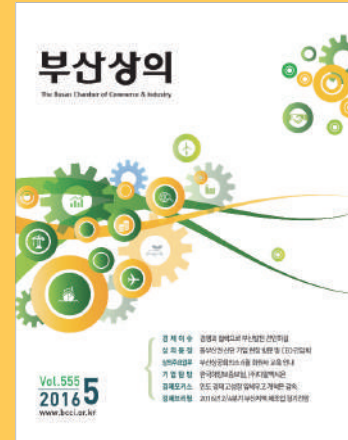
### 46

멤버스 라운지  
회원기업 10대 특전  
부산상공회의소 쿠폰북



핸드폰을 통해  
부산상공회의Show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부산상의지가 부산상공회의소의 Show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03  
2006

2009  
2013

2016  
2017

2018  
2021



지난 1974년부터 부산상공회의소의 주요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 이슈 및 경영트렌드를 제공해온 부산상의지가 회원 기업 CEO들을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은 스토리 북으로 개편되어 앞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화

# 부산상공회의 Show

소통  
하는

회원기업 CEO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소식들을 스토리북 형태로 담았습니다.  
부산상공회의Show라는 제호에 맞게  
'Fun & Trendy' 한 읽을거리로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회원기업 CEO를 비롯한 애독자 여러분께서도 Show를 통해  
일상의 한 부분을 재미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부산을 거넉다” 1편 부산포개항가도 (釜山浦開港街道)

※ 거넉다(겉다+읽다)

글\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칼럼리스트 소개**

필자는 이바구스트 손반장이다. 2013년부터 부산사람들의 삶을 여행으로 풀어내며 부산여행특공대라는 부산 냄새가 물씬나는 부산 유일의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역사 공부를 게을리 하지않고 한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사건을 거치며 부산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과 산복도로를 매일같이 여행하며 부산의 속살을 여행과 강연으로 보여주고 있다.



좌천역 3번 출구 옆 부산포개항가도 지도

“부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부산포개항가도 답사 때마다 답사객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필자가 던지는 첫마디다. 고개를 가우똥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그렇다. 부산이라는 이름의 산(山)은 부산에 없다! 부산(釜山)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살펴보면 가마 ‘부(釜)’에 뿔 ‘산(山)’을 쓴다. 15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을 나타내는 한자는 부유할 ‘부(富)’에 뿔 ‘산(山)’이었는데 15세기 말엽부터 ‘부산(富山)’은 존재를 감추고 ‘부산(釜山)’만 남게 되었다.

역사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바다에서 ‘부산포’라는 작은 포구에 들어올 때 지표가 되는 산이 가마(가마솥)꼴과 같으므로 ‘釜山’이 되었다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그 가마꼴 모양의 산(山), 부산(釜山)은 어디일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가장 지지받았던 설은 동구 좌천동에 있는 증산(龜山)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부산진성공원(옛 자성대공원)의 작은 동산이 가마꼴 산이라는 일명 자성대설도 제기되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외에 ‘가마꼴 산’이라는 어떤 ‘특정된 산’이 아닌 釜山을 파자한 팔금산(八金山)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당시 부산포 주변의 소금가마(釜)에서 부산(釜山)의 부(釜)가 유래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부산포개항가도를 걷다

필자와의 첫 번째 부산 거넉음은 이렇듯 부산지명의 유래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부산포개항가도는 초량 이바구길로 대표되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이바구길 중 하나로 부산진성공원(옛자성대공원)에서 부산진시장, 영가대 터를 지나 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에서부터 정공단, 부산진일신여학교,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등을 거쳐 증산공원 증산전망대까지 이어지는 2.38Km의 역사가도(歷史街道)이다. 1407년 부산포 개항에서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거점 또는 시설들이 있고 부산지명의 유래가 되는 산 중 하나인 증산, 곧 부‘산(釜山)’으로 오르는 길이기도 하다.

좌천동 3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부산포개항가도’ 지도를 바라본다. 지도 뒤편으로 영진칠기사와 국보온돌침대사이 만세거리 골목으로 들어서니 동구의 역사 인물들이



1\_ 만세거리 골목  
2\_ 정공단  
3\_ 부산진교회  
4\_ 부산진일신여학교



벽에 새겨져 있고 앞으로 나아가니 골목 전체가 거대한 태극기로 변한다. 태극기의 감동 아래 사진을 한 장 남긴다. 부산 최초의 3:1운동을 벌였던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일본 순사들로부터 지켜내고 골목을 오르니 정공단이다. 임진왜란 최초 격전지였던 부산진성을 지키다 순국하신 정발장군을 모신 정공단에 올라 충장공 정발장군과 함께 목숨을 바쳤던 모든 백성의 넋을 향해 묵념을 올린다. 돌아 나오는 내삼문(內三門) 아래 오죽(烏竹)이 흑의장군(黑衣將軍) 정발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한다. 정공단을 나와 왼쪽으로 오르니 언덕 위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라는 부산진교회가 위용을 드러내고 그 옆으로 2층의 작은 붉은색 벽돌 건물이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민다.

### 골목사이에 깃든 역사를 읽어가다

부산진일신여학교(釜山鎭日新女學校)는 부산경남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부산진교회를 연 호주선교사들이 1895년 소학교 3년 과정을 신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동래여고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건물의 1층은 1905년, 2층은 1931년 증축된 것이라고 하며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중 대부분이 일본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에 비해 서양선교사들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다. 거기에 1919년 3월 10일 있었던 부산 최초의 3:1운동의 주인공들이 일신여학교 학생들이라 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1·2층의 자료실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나날이 새롭게(日新)라는 교명을 바라보다 거리에 나서니 거대한 독립선언문 가벽이 우리를 반긴다. 동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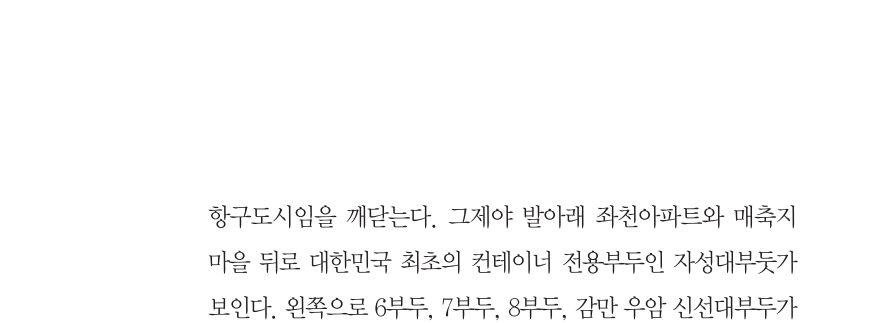
5\_ 부산진일신여학교 옆 독립선언문 가벽  
6\_ 동구의 독립투사  
7\_ 안용북기념관 전경

독립투사분들의 얼굴이 새겨진 벽 앞에서 서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마주한다. 오로지 독립의 의지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독립투사분들의 위대한 정신을 잊지 말자 널리 알리겠다 다짐하며 안용북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호패에 따르면 안용북은 동구 좌천동 사람이며 조선 시대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아 오신 분이다. 안용북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으로 들어서니 부산 지명의 유래와 부산포 개항의 역사,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인 부산진순절도와 정발장군, 안용북과 독도 수호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부산에 올라 부산을 바라보다**

안용북 기념관을 나와 ‘부산’에 오르기 위해 좌천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2017년 세계경사형 엘리베이터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바로 그 엘리베이터이다. 대한민국에서 노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인 동구, 동구 좌천동의 가팔랐던 계단 위에 사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경사형엘리베이터는 그 의미를 인정받아 1등이 되었다. 이제는 해발 131m의 증산, 또 다른 부산으로 우리를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너무나 고마운 녀석이다. 해발 90여 미터 이상을 올라 상부 승강장에 내린다. 임진왜란 침략의 역사 산물인 증산 왜성이 1593년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로는 부산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1969년생 좌천아파트가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곳곳하게 부산을 내려다보고 있다. 좌천아파트를 돌아 계단을 몇 걸음 오르니 전망대가 보인다. 드디어 오늘의 종착지 증산전망대다. 너무 많은 이야기와 단상들로 무거워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걸음을 내 던지고 일어서는 순간 정면으로 멀리 부산항이 펼쳐진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시선이 산복도로의 풍경과 어우러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와 영도의 부속 섬 조도에서 잠시 멈춘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던 시선이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문현의 풍경을 스치고 우암 감만의 풍경을 지나 감만의 끝 신선대에서 멈췄다가 조도와 사이의 바다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무역선에서 만나 겹쳐질 때, 부산은



8\_ 좌천동 경사형엘리베이터  
9\_ 좌천동 경사형엘리베이터 옆 계단  
10\_ 부산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좌천아파트(1969년)  
11\_ 증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

항구도시임을 깨닫는다. 그제야 발아래 좌천아파트와 매축지 마을 뒤로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부두가 보인다. 왼쪽으로 6부두, 7부두, 8부두, 감만 우암 신선대부두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자성대부두 너머 부산항대교 위를 지나는 차들이 우리를 바라본다.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관통하며 쪽 뻗어 나간다.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병풍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파스한 산복도로의 풍경과 마주하게 되고, 산복도로에서 다시 반사된 시선들은 근현대 역사를 힘겹게 이겨내 온 부산인들의 삶을 품은 메아리가 되어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부산’에 오르는 동안 소중한지 않은 역사가 없음을 깨달으며 이 땅을 지키고 만들어오신 수많은 인물과 그들의 정신과 스토리를 거닐었다. 부산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부산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래와 발전이라는 단어 아래 모두가 공감하고 반기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더 커졌다. 바람이 불어온다. 멀리 부산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안용북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에서 만났던 희미하게 바다내음을 품은 그 짹짹한 바람이다. 🌊





# 미리 떠나보는 사이판 골프여행

글&사진 Ytour&golf  
www.ygolf.co.kr

사이판은 현재 부산에서 출도착시 격리없이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골프여행지이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에어부산이 매주 한편 7박8일로 운행 중이며  
아침 출발과 저녁 도착으로 일정을 꽉 채울 수 있다.  
사이판으로 떠나기 전 다양한 팁을 알아보자.

마나가하섬

### Check 사이판 정부 & 관광청 지원사항

- ❗ 사이판 여행 후 한국 귀국 시 10일 격리 면제
- ❗ 여행지원금(트래블 벅스카드) \$100 제공
- ❗ 사이판 현지 PCR 검사지원(1회당 \$300상당)

### 사이판 여행 사전 준비 Tip

- ❗ 1년 내내 더운 사이판. 여름옷,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은 필수
- ❗ 미국령. 영어권이며 현지경비도 달러로 준비
- ❗ 면세품은 공항보다는 시내면세점 구매 후 공항에서 인도 받는 것이 편리

### 출발 전 준비사항

사이판은 양국 무격리여행이 가능한 트래블 버블 계약국으로 사전입국 준비도 항원검사로 간단하게 준비하면 된다.

### 매주 일요일 출발 및 일요일 도착

출발 3시간 전, 늦어도 2시간 전에는 공항 도착을 추천한다. 부산-사이판 출발 시간 오전 8시로 비행시간은 4시간 소요되며 시차는 1시간 늦다. 부산 출발 사이판 도착은 현지 시간으로 11시이다. 에어부산 등 LCC 항공사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기내탑승 전 간단하게 요기하는 것도 좋다.



1\_코렐오션골프코스  
2\_마리아나 컨트리클럽



추천 코스

### 코렐오션 골프 코스

미국 PGA 프로 월드 클래스 챔피언 래리 넬슨(Larry Nelson)이 디자인한 사이판 유일의 LPGA 규격 18홀 코스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1월 새 단장을 마쳤다. 페어웨이, 그린 상태가 최상의 상태를 자랑한다. 리조트를 갖추고 있는 골프텔로 이동이 자유롭고 특히 바다를 향해 날리는 샷이 일품이다.



6\_켄싱턴 호텔  
7\_코렐오션 골프 리조트

### 켄싱턴 호텔

사이판 최고의 특급리조트이며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아쿠아풀과 인피니티 풀을 운영하고 있다. 키즈클럽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코렐오션 골프 리조트

사이판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이판의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품은 리조트로 최근 재단장했다. 🏠

추천 숙소

추천 관광지

### 마나가하 섬

마나가하 섬은 부드러운 백사장과 바닥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새파란 하늘, 3박자를 모두 갖춘 사이판 최고의 명소이다.

### 버드아일랜드

석회암 지형인 이 섬에는 새가 등지를 틀기에 적합한 작은 구멍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 질 무렵이면 수 많은 새가 섬 주변으로 모여들어 장관을 이룬다.

### 그로토

사이판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전 세계 다이버들 사이에서 꼭 한 번쯤은 가 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꼽힌다.

### 만세절벽

시원스럽게 탁 트인 시야 덕분에 사이판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 라오라오베이 골프 코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골퍼 그레그 노먼(Greg Norman)이 설계했으며, 사이판에서 유일하게 36홀 골프 코스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안가의 절벽에서 절벽으로 이어지는 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이색 코스다.

### 마리아나 컨트리클럽

사이판에서 최초로 개장한 이 코스는 해발 100m 산 아래에서 바로 시작하여 총 18홀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을 따라 초특급 호텔과 스파, 승마장과 자동차 경주장 등이 위치해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_만세절벽  
4\_그로토  
5\_버드아일랜드





# <골프 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골프를 만나다

글\_ 김대곤 대표  www.ygolf.co.kr

골프가 핫하다. TV를 틀면 골프 예능도 많이 보인다.  
골프 인구도 5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한민국 최다 동호회가 이젠 조기축구가 아니고 골프 모임이라고 한다.  
더 주목할 것은 2030 MZ세대의 골프 인구 유입이다.  
 불과 2년 전 70만 명에서 현재 1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박세리로 시작된 골프는 이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 부울경 메가시티, 세계적 골프 인프라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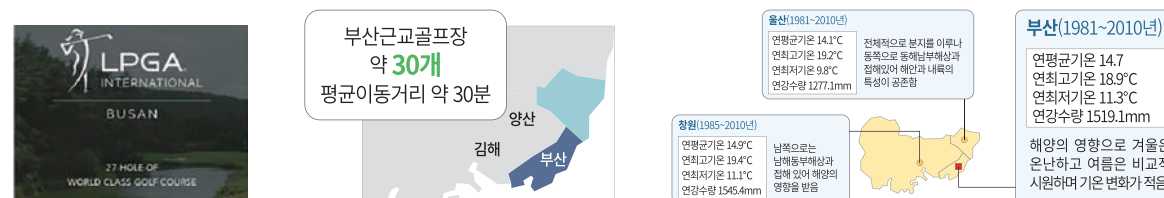
전 세계 50개국, 3백 개 이상의 골프장을 다녀온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러한 골프 대중화에 맞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골프 목적지이다. 특히 부산은 LPGA 대회를 개최하는 아시아드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골프 도시로서의 경쟁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온화한 날씨이다. 부산, 창원, 울산지역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한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고 일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다. 서울, 북경, 동경 등 여타 세계적인 메가시티에서는 갖지 못한 신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이동 거리이다. 부산의 경우 메가시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면, 해운대 등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1시간 거리에 30여 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해운대를 기점으로 30분으로 좁혀도 아시아드CC, 베이사이드CC, 스톤게이트CC 등 5개 내외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 부산메가시티, 연평균 14도 세계적인 골프목적지의 발견



3000 vs 40  
520 vs 10

이동의 편리성

온화한 날씨

세 번째는 메가시티 인프라이다. 바다, 산, 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쇼핑, 미식, 관광에 대한 인프라 또한 전 세계 어느 도시에 비추어도 부족하지 않다. 골프와 도시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메가 시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아시아드CC를 체육시설이 아닌 골프 마이스 메뉴로 인식 전환

필자는 부산을 고부가가치 골프 관광 마이스 도시로 안착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 소유 아시아드CC를 관광 마이스 시설로 전환해 보면 어떨지 생각해본다. 부산을 찾는 여행객 및 마이스 참가자에게 골프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은 경험과 기억을 통해 재방문할 것이며, 골프장도 주중을 중심으로 비선호 시간대를 활용하고 부산 인근 30여 개의 골프장과 협업하면 가능한 일이다.

골프 마이스 경험자들의 축적을 통해 부산의 브랜드는 고급화될 것이다.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부산 골프 마이스를 통해 연간 1만 명이 부산을 방문한다면 직·간접소비는 3백억, 고용 창출 또한 연간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이 국제관광 도시에 선정되면서 해양레저, 야경, 커피, 펫 등 많은 핵심키워드가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골프 기반 부산 메가시티 관광과 마이스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엮어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 겨울골프 10타 줄이는 Tip

### 추운날씨를 인정하라

체감온도가 낮은 날씨에는 몸이 굳어 정상적인 스윙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큰 스윙은 자제하는 게 좋다. 특히 팔로스윙보다는 백스윙의 아크를 크게 하여 힘을 더욱 빼고 볼을 맞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 페어웨이에서는 로프트각을 크게 잡아라

땅이 얼어있는 곳에서 디봇을 내기는 쉽지 않다. 자연히 탄도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볼이 높게 날릴 수 없고 어설픈 볼은 그린에서 튀어 나가기 마련이다. 롱 아이언보다는 미들 아이언, 그리고 목표로부터 짧게 거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드는 웬만하면 잡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 무리한 샷보다는 프리드롭 통한 사고예방 우선

쫄고 몸이 굳는다. 미스 샷이 발생한다. 이 경우, 동반자와의 협의를 통해 프리드롭을 추천한다. 오래 골프를 치고 싶다면 겨울에는 무조건 사고 예방이다.

### 칩샷보다는 롱퍼팅을, 퍼팅시에는 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보는 걸로

겨울 그린은 얼어있어 아이언 어프로치는 통통 튀어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는 퍼팅 시 탑스핀을 주어도 얼어있어 공은 튀면서 굴러가고 탑스핀이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이

20년 넘게 단골로 찾는 중국음식점

몇 달 전 장인화 회장이 오전과 오후에 걸친 일정으로 인해 점심시간을 넘기고 식사를 하러 화국반점을 찾았다. 사장님은 “회장님 회장 하지 마이소, 이리 늦게 밥무로 오면 우찌 합니까.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입니까 허허허~~” 라고 말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를 자랑한다. 사장님은 장인화 회장의 회사가 중앙동에 있을 때부터 직원들과 함께 오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온다며 요즘에도 며칠에 한 번은 꼭 와서 식사하고 가는 20년이 넘도록 찾는 ‘진짜 단골’이라고 표현하였다.



1\_ 화국반점 가게 모습  
2\_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에게 받은 2020도쿄올림픽 종목별 배지



CEO의 단골 맛집

42년의 역사 ‘화국반점’

지하철 1호선 중앙역 5번 출구로 나와 용두산공원 방향으로 걷기를 5분 남짓 40년이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온 음식점 ‘화국반점’을 찾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동광동3가 2-6)

1980년부터 한 자리를 지켜온 화국반점의 역사

1980년 4월부터 화국반점을 운영해온 지도 어느덧 43년째, 화국반점 이전에 집안 어른들이 운영하던 보영반점과 신보영반점까지 하면 60년도 넘는다고 말하는 사장님은 이제 ‘제대할 때’ 되었다며 웃음 섞인 농담을 하면서도 손님이 오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반갑게 맞이하고 음식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3\_ 화국반점 왕애국 사장님  
4\_ 화국반점 내부 모습

2대, 3대가 찾아오는 중국음식점

1980, 90년대만 해도 화국반점의 주요 고객은 부산시청, 부산시경 공무원들이었다며, 평일 점심시간이면 넥타이를 맨 직장인이 늘 자리를 가득 채웠다고 한다. 이후 시청과 경찰청이 이전하면서 자연스레 주변의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며 찾는 사람들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등 영화 촬영 이후에는 젊은 층들이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많이 온다고 한다. 가족이 식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나 젊을 때 여기 단골이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된다고 하였다. 사장님은 “이 동네가 거의 다 바뀌었는데, 우리 집은 그대로니 예전 추억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이 촬영지로 선택한 음식점

가게로 들어서면 보통의 중국집과는 다른 오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화교풍의 인테리어를 마주하게 된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영화 신세계에서 황정민과 이정재가 음식을 먹던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과 하정우가 이야기를 나누던 곳도 이곳이다. 백종원의 3대천왕도 다녀갔다. 가게의 느낌이나 맛은 이미 인정받았다고 보면 된다. 영화나 TV에 나오기 전에도 아는 사람은 아는 맛집으로 유명했지만, 영화와 TV에 나온 뒤로는 다른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유명한 메뉴는 ‘간짜장’

화국반점의 메뉴 중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간짜장이다. 고기가 없는 간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파가 많이 들어 가 있고, 먹는 순간 진한 불맛이 입안에 퍼지게 된다. 지금까지 먹어온 간짜장과는 또 다른 강렬한 맛을 자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한결같은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왔다는 왕애국 사장님은 “앞으로도 손님들이 늘 만족하는 음식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 <서른 즈음에>가 매년 소환되는 이유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 교수·작가

<서른 즈음에>는 줄기차게 소환된다. 2020년엔 국민가수 ‘임영웅’도 불렀다. 2019년에는 국민 연하남 ‘정해인’도 불렀다.

임영웅의 노래는 담담하다. 최선을 다해 가사를 전달하려는 듯하다.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 온 것도 아닌데”라고 할 땐, 아직 한 번도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도, 떠나온 적도 없는 청년의 천진함마저 느껴진다. 가사가 내뿜는 고통을 모르고 부르는 듯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다. 너무 알면 과하게 감정이입하고, 그래서 감동이 덜한 법. 임영웅에게는 그런 감정이입이 없으니 더 아픈 것이다. 노래를 듣는 사회자 김성주가 더 가사에 감응한 듯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얼굴이 심각해지고 눈가가 축축해진다.

정해인의 노래는 어설피다. 어설피서 더 진심처럼 느껴진다. 노래를 부를 때 그의 얼굴은 연기할 때의 순정남 같은, 소년 같은 표정이 아니다. 아직 얼굴에 숨털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청년이 부르는 <서른 즈음에>는 오히려 낭만적이다. 역시 ‘서른 즈음’의 청년보다 그보다 훨씬 나이를 먹어 버린 어른들의 마음이 더 적셔진 듯하다. 관객 중 몇몇은 영겁결에 무장해제된 감정에 어색한 듯 멧찍은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삼십 대만 <서른 즈음에>에 마음이 동하는 게 아니다. 흘러간 시간을 의식하면, 혹은 시간이 만드는 이별에 당도하면 <서른 즈음에>는 언제든 귓가에 서성인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첫 소절부터 아련하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답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답다’는 명제는 정신분석학자 라강이 말한 ‘주이상스(juissance)’로 연결된다. 주이상스는 일단 ‘쾌락’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쾌’는 ‘불쾌’가 내재한 ‘쾌’이다. ‘고통스러운 쾌락’이 주이상스인 것이다.

어쩐가, 청춘을 떠올리면 내가 떠나보내지도, 떠나오지도 않은, 그러나 불가피했던 이별이 아프지만, 또 아름답게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함께 들지 않는가. ‘내게 이런 고통이라도 없다면 이 생이 얼마나 무의미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고통 덕에 ‘나’를 버티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청춘’이라는 아름다움도 그러하다. 고통은 가질 수 없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젊음 때문이다.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에서 울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마 아무것도 없지는 않지만, ‘시간’이 사라졌으므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과 같은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나’를 ‘나’로서 의식하는 시간이다. 주이상스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를 확인할 것인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존재케 한다. 주이상스를 지닌 자의 얼굴은 묘한 아우라를 풍긴다. 이들의 얼굴은 양가적이다. 행복한 표정에도 슬픔이 묻어 있고, 슬퍼할 때의 얼굴은 웬지 텅 비어 있다. 나이를 기늠할 수 없는 섬세한 에너지도 감지된다. 나이 든 자의 아름다움은 주이상스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중년 가객의 <서른 즈음에>는 어떨까. 전인권의 <서른 즈음에>에는 감상이 온전히 빠져 있다. 그의 음성은 노래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 같다. 그가 가사를 이야기처럼 읊조리는 것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픔에 무디어져서가 아니라, 그 아픔이 생애 주었던 눈부신 기쁨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나이는 서른의

두 배도 넘지만 ‘서른 즈음에’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서른’은 구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냥 ‘시간’ 그 자체인 것 같다. 매일 이별하며 사는 우리는 언제든 ‘서른 즈음’인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점점 생이 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번아웃까지 겹치면 무기력까지 합세해서 우울증이 감지되기도 할 것이다. 그때 <서른 즈음에>의 느슨한 연대가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과 사랑을 떠나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별의 아름다움도 잘 안다. 그것이 떠나간 자리엔 그것을 사랑했던 ‘나’가 있다. 우리는 주이상스 때문에 미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는 주이상스 덕분에 미치지 않고 겨우 살아간다. <서른 즈음에>를 부를 때는 미칠 것처럼 처연해 지지만, 그 미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미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을 ‘성과주체’로 만든다. 성과주체란 성과를 위해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사람이다. 성과주체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하는 조건명령문에 충실한 자이다. 우리 사회, 성과주체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엔 더 이상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다. 성과가 모든 것의 준거가 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는 사이, 시간은 더 빨리 사라진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천천히 늙지만, 더 빨리 나이를 먹어 간다. 삼십 대를 훌쩍 넘긴 사람은 안다, 서른까지의 시간은 차라리 천천히 가는 거라고, 서른 이후의 시간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속도로 질주한다.

성과주체도 가끔 공허의 무게를 실감한다. 공허만큼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더라. 그러나 그 공허는 또 다른 기회다. 나에게 존재한 아름다운 고통을 향유할 기회, 그 고통스러운 쾌락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만약, <서른 즈음에>에 마음이 울렸다면, 그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



# Story of 캡틴 장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다함께 박수!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2021. 12. 2)

부산 지식학협력 Scale-up 컨퍼런스  
(2021. 12. 6.)



#지산학 협력을 향한  
비행기 훨훨 날아가자



부산 스타트업 데이 99°C  
(2021. 12. 3.)

#선배기업인들이  
스타트업의 후견인이  
되어 줄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성공 결의 대회 (2021. 12. 14)

#2030부산세계박람회  
우리가 마 함 해로임시더!

제239차 부산경제 포럼(2021. 12. 15.)



#QR 체크인은  
나부터 확실하게!  
#기업인은 새벽에  
인사이드를 얻는다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행사  
(2021. 12. 31.)

#업인년,  
후호망이의 해가 왔음을  
알린다

#북항이 엑스포 개최하기에  
딱 이란 말이지



2022년 새해 첫 현장 방문 (2022. 1. 3.)

부산시-부산상의 경제협의체 대표회의  
(2021. 12. 20.)

#시장님 우리  
소통하입니다!



2022년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식(2022. 1. 3.)

#올해도 잘할 수 있제?  
잘 부탁한데이!

2020 두바이 월드엑스포 참관  
(2022. 1. 15)



#나도  
두바이엑스포  
인증샷카 한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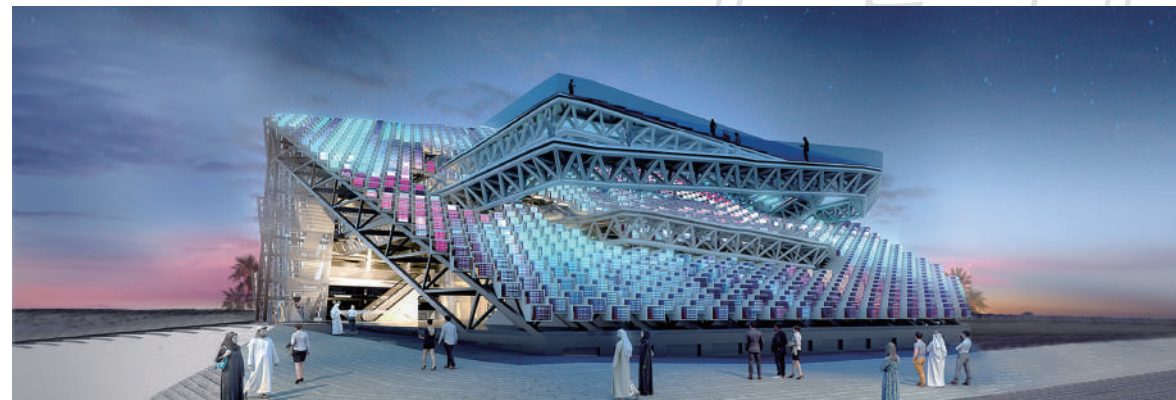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원대한 도전

#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 행사명** 2030부산세계박람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개최기간** 2030. 5. 1 ~ 10.31. (6개월간)
- 장소**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 참가규모** 200여개국, 3,480만명
- 기대효과**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일자리 창출 50만명



2020두바이엑스포 한국관(출처: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공식홈)

## #세계 3대축제

- 2014** 07.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방안 수립
- 2018** 04.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안 승인(기획재정부)
- 2019** 05. 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11. 정부합동유치기획단 출범
- 2020** 06. 부산시 주도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6.15.총회)  
12. 정부대표 부산 유치의향 표명(국제박람회기구 총회)

## #글로벌 도시 부산

- 2021** 11. 국무총리 주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출범
- 2021** 10. 유치후보국(5개국) 확정, 대한민국(부산),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 2021** 07. 정부주도 (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출범
- 2021** 06. 유치신청서 BIE 제출 (6.23, 파리/정부대표·부산시장)

→ 2030부산세계박람회 후원금 전달식(2021. 11. 15)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부울경 경제계 공동선언식(2021. 10. 5)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산시-부산상의 간담회(2021. 8. 23)

## #새로운 미래

- 2021** 12.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대사 위촉 '영화배우 이정재'
- 2021** 12.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유치 후보국 1차 PT, 본격 회원국 교섭활동 및 유치사절단 파견
- 2022** 상반기 최종 유치계획서 제출  
하반기 BIE조사단 현지실사
- 2023** 상반기 BIE 개최지 결정 (170개 회원국 비밀투표)

자료: 부산시,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등

2023. 06  
2030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확정!

# #조대합니다





일본관



사우디관



한국관

66

사흘간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 부산을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99



일본 오사카 엑스포 관계자 간담 이후 기념촬영



2020 두바이세계박람회 한국의날 공식행사 참가

66

대통령께서 정상간 외교활동과 함께 두바이 엑스포 현장을 열심히 누비신 것은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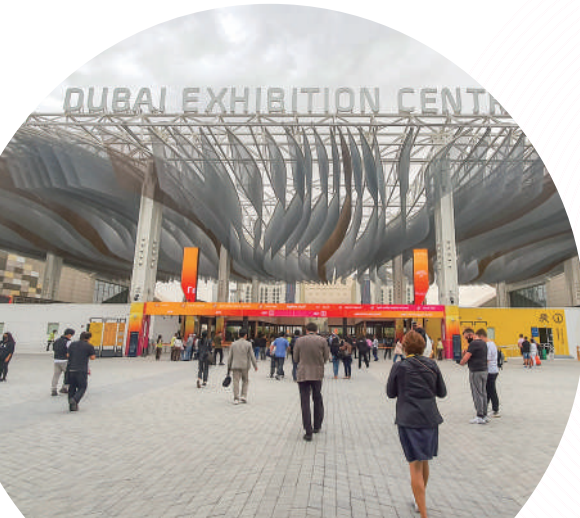
99

# 2020 DUBAI

# WORLD EXPO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1월 14일(금)부터 1월 18(화)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고 있는 2020 두바이 세계 박람회를 참관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두바이 전시센터



미국관 관계자들과 촬영



한국의 날 행사 한국공연팀과 기념촬영

66

부산상공회의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 붐업을 위한 엑스포 유치 홍보 오디션을 진행하여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다

99



미국관 시찰



앙골라관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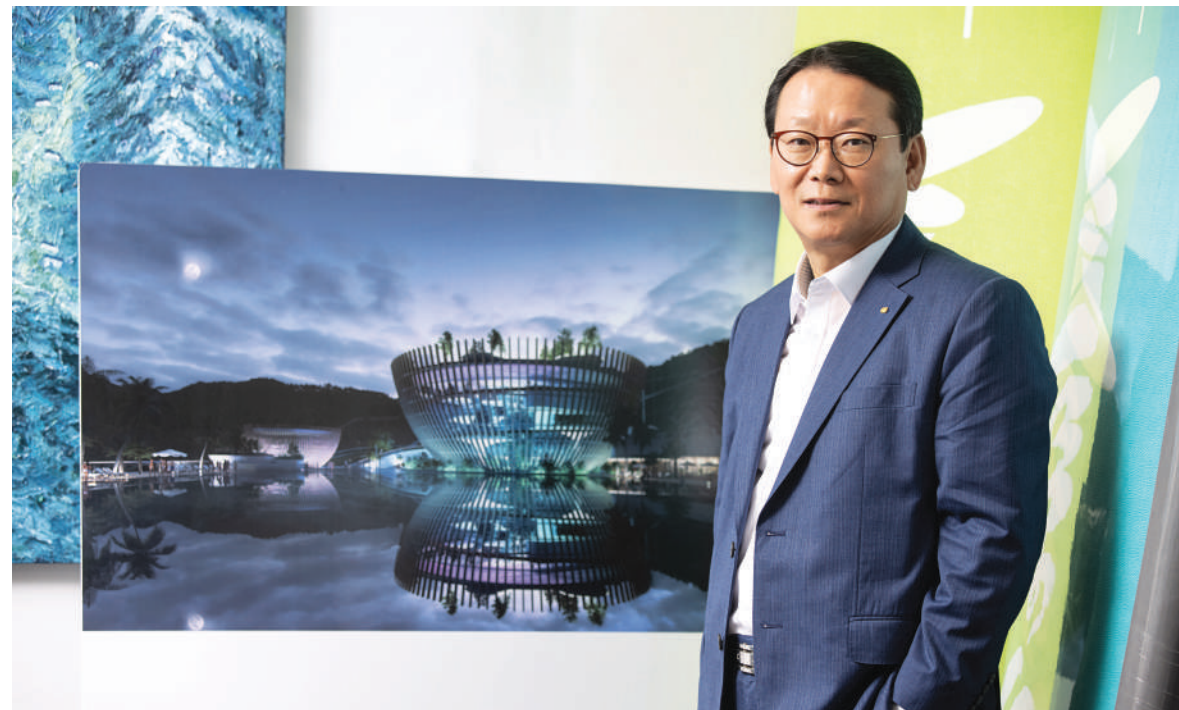
부산-두바이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사진\_부산상의, 부산광역시



#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 (We Build the Future)’ 새로운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대원플러스그룹

대원플러스그룹은 2011년 아시아 최고 299m 주상복합 건설과 함께 주거 상업시설 부문 한국 최고의 디벨로퍼로 성장했으며, 그 간의 역량을 결집해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 세계 최대 인공서핑 파크 등 테마파크와 관광 복합시설 및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 기업이다.



대원플러스그룹 최삼섭 회장

### 창의적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디벨로퍼(developer)’

대원플러스그룹은 2011년 수영만 매립지 위에 80층 규모의 세계 최고층 주거용 아파트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를 완공해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이자 마천루가 즐비한 부촌을 상징하는 ‘마린시티’는 대원플러스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마린시티 제니스는 세계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Red-Dot) 디자인 건설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등 부산의 건설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1\_ 두산위브더제니스  
2, 3\_ 송도해상케이블카



### 한국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관광 랜드마크 개발의 선구자

대원플러스그룹은 디벨로퍼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광자원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특히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갖춘 부산에 해양을 활용한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것을 고민한 결과, 부산 지역에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2017년 완공한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부산의 10대 히트상품 1위에 선정되는 등 도심 재생은 물론 부산의 해상관광산업을 활성화한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개장 당시 송도해상 케이블카는 전 세계 6대륙 95개국에 설치된 1만 5천여 개 이상의 케이블카 중 경영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언론에 보도되며,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 이벤트가 연계된 창의적 프롭테크(Proptech)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송도해상 케이블카는 부산의 관광 지도를 바꾸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송도해상케이블카로 인하여 직접 고용 150명, 간접고용 6,000여 명을 끌어낸 것은 물론, 해상케이블카 개장 효과가 더해지면서 송도해수욕장의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관광호텔이 신규로 조성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개장으로 해양관광-레저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다

대원플러스그룹은 경기도 시흥에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야외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2020년 10월 개장하였다. 그룹에서 처음 ‘서핑’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4년 무렵 한국의 서핑 인구 약 4만 명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서핑 전문 숍이나 서핑관련 업체들도 꾸준히 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서핑이 한시적 이슈로 그치지 않고 해양레저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가 없어 서핑문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깨고 인공서핑이라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공 서핑의 스포츠 관광 인프라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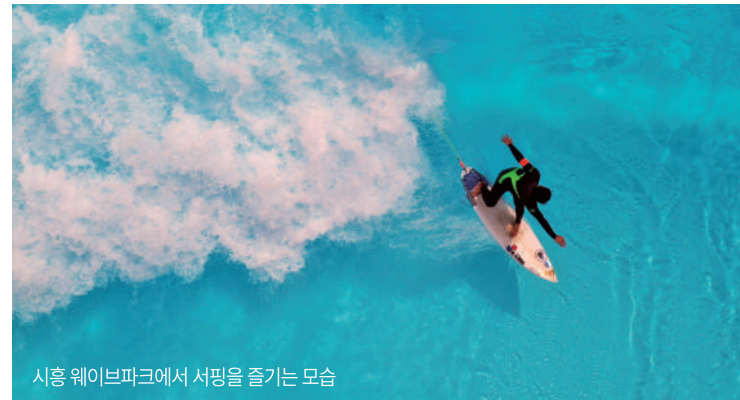
‘웨이브파크’는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 일대 16만 6천여㎡ 부지에 5천63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인공서핑장으로, 서핑장과 파도풀, 수상레저 체험장, 다양한 놀이 시설 등을 갖춰 유아부터 성인 서퍼까지 즐겨 찾는 해양레저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 받고 있다. 개장 후 ‘웨이브파크’는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인공서핑장 최초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획득했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 군인, 경찰,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의 해양레저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웨이브파크는 여러 기관과의 협약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시흥시 서핑협회와 협약을 맺고 소속 서핑팀이 훈련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지난 6월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서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교들과 협약해 소속 대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고, 시흥시·고용노동부·시흥시 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인 ‘수상안전 및 응급구조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시흥 웨이브파크 전경



‘웨이브파크’ 완공을 계기로 대한서핑협회, 부산서핑협회, 시흥서핑협회 등과 손잡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서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부산과 한국이 해양 스포츠 종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21년 8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19년 28위에 불과하던 시흥시가 18위로 10단계 상승했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개장한 세계 최대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역할이 컸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공서핑이라는 해양 관광콘텐츠를 통해 시흥을 ‘관광도시 시흥’이라는 도시 브랜드로 변모 시켜 가고 있다.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서핑을 즐기는 모습

**부산의 중심, 황령산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및**

**스노우캐슬 사업 정상화 추진**

대원플러스그룹은 지난해 부산시와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통한 부산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부산의 중심인 황령산 정상에 부산의 도심 야경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전망대와 국내 최초 관광교통형 케이블카 조성 추진으로, 현재 동-서부산 관광 축을 단절하는 장벽이 되는 황령산을 관광 허브로 변모시키는 봉수전망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서울 남산타워 보다 높은 국내 최고 높이의 전망대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둔 부산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심을 받고 있다.

황령산 스노우캐슬은 2008년 시행사의 부도로 영업이 중단 되면서 14년째 흉물로 방치되었다. 대원플러스그룹은 민자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66  
 대원플러스그룹은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99

1조 2천억 원을 조성하여 황령산 유원지(23만 2632㎡)를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세계적 도심형 복합휴양 관광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부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이자 지난해 14회를 맞이한 세계적인 광고제 ‘부산국제광고제’는 2008년 대원플러스그룹의 최삼섭 회장이 부조직위원장을 맡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고 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광고제는 2008년 출품 규모가 29개국 3천여 편이었는데, 2019년부터 60개국 2만여 편으로 늘어 아시아 최대의 광고제 자리 잡았다.

대원플러스그룹은 광고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후원, 아트부산 조직위원 활동,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1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4천만 원, (사)부산문화관광 축제조직위 3천만 원, (재)한중우호친선협회 6천만 원 등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학생 들을 위한 교육 기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구청장 학회, 한국영재학교, 부산국립과학관 등을 대상으로 발전 기금과 장학금 기탁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업인**

최삼섭 회장은 평소 봉사와 헌신은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해야 한다는 소신 있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 설치한 ‘사랑의 쌀독’은 지난 10년간 항상 쌀이 가득 채워져 있어 누구나 마음껏 쌀을 퍼갈 수 있었다. 이러한 작지만 꾸준한 나눔이 기업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며 지역사회에 헌신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여 향토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부산지역 운영위원을 맡아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지도 및 선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수영세무서 세정자문위원과 명예 서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세금납부 의무에 대해서도 솔선수범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문화방송 시청자위원,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사, 주부산스페인 명예대사, 부산고등법원 조직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원 등 언론, 국제교류, 법무, 행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부산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13년 부산산업대상 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삼섭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마그네트 이송 장치의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 (주)상영마그네트

항공기, 조선, 중장비와 같은 제조 공정에서는 가공, 조립, 후처리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강재(鋼材)의 이송에 있다. 이러한 강재 이송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공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2017년 창업을 시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주)상영마그네트 이다.



(주)상영마그네트 박영재 대표와 직원들

## 아이디어 기술 공모전이 가져온 혁신의 시작

(주)상영마그네트는 전자석을 개량한 영구자석을 순간 전기 신호로 제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강재 물류를 이동 시켜 기존 제조업 공정과 스마트 팩토리에 안전과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사업의 시작은 철구조물을 가공하던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던 박영재 대표가 생산공정의 혁신을 고민하던 중 참가한 기술이전회사 설명회에서 영구자석을 전기 신호로 제어하는 기술을 접하면서부터다. 박 대표는 이 기술을 상용화만 시키면 제조공정에 엄청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술이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 후 2017년 (주)현대중공업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아이디어 기술공모전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고, 이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부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틀을 다지게 되었고, 2018년 3월 창업지원사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면서 기술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 지도를 통한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1\_ 2017년 현대중공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2\_ INOPOLIS Campus DEMO DAY 장려상 수상

##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된 제품 납품의 기회

상영마그네트는 사업 초기 철구조물 제조업종에서 종사해 온 박영재 대표의 경험을 살려 조선, 철강, 건축 구조용 대형 철 제품을 취급하는 마그네틱 이송 장치 개발에 집중을 해왔다.

하지만 당시 장기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장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획기적인 제품이라도 설비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해당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욱더 어려웠다.

판로 개척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중에 개발 중인 제품 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 하였는데 이 영상이 창원의 한 중견기업의 개발 실무 담당자의 눈에 띄었고 때마침 중장비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협의를 거쳐 시제품 단계의 MAGSPIDER를 현장 자동화 라인에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실제 공정에 투입되었다. 아무런 검증 없이 납품했던 제품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당시 제품을 도입한 기업에서도 이미 투자한 설비를 회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성공시켜보자는 의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박영재 대표도 배수의 진을 치고 3개월을 밤낮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한 결과, 현재는 해당 기업의 자동화 전 공정 이송을 상영마그네트의 MAGSPIDER가 책임지고 있다.

## IOT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장비 ‘MAGSPIDER’

(주)상영마그네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시장의 영구자석 제품은 사용자가 수동 조작해야하며, 해외에서는 영구자석을 공압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널리 활용되는데 자력이 약하고 공압 제어를 위한 별도의 설비가 따라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전기의 힘으로 자력을 발생시키는 전자





3



4

3\_ 마그네틱그리퍼 현장작용 사례  
4\_ 자동화 마그네틱 리프트  
5\_ (주)상영마그네트 박영재 대표



5

석의 경우 전력소모량이 높으며 정전 시 낙하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비상전원장치, 보조배터리 등이 제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는 제품의 사용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유용한 최소한의 설비로 낭비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필요한데,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개발에 몰두한 결과 상영마그네트의 MAGSPIDER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MAGSPIDER의 가장 큰 특징은 영구자석을 순간적인 전기 신호로 제어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단순 전기 제어로 결정지으면서 한번 결정된 경로로 영구적으로 자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 설비 없이 안전하게 현장에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전기로 제어하면서 결정된 자기장의 방향이 흡착하고자 하는 대상물(강재)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센서, VISION CAM, LOAD CELL 장비 등의 응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정 자동화에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기 소비를 줄여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부산상공회의소 ‘스타트업 데이 99°C’ 무대에 서다**

술한 시행착오 끝에 창업 3년이 지나갈 때쯤 상영마그네트는 각종 인증과 특허, 기술공모전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상을 하면서 조금씩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점 기술력있는 스타트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데이 99°C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박영재 대표는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인 선배님들과 다른 유망한 스타트업과 함께 부산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영마그네트 회사와 그동안의 노력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다”며, “스타트업들은 이미 크게 성장한 기업의 대표들 앞에서 회사를 소개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오랜 기간 위기를 극복해온 다양한 선배기업인들 앞에서 회사를 검증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직원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해주는 기업가를 향해**



부산상공회의소 스타트업 데이 99°C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박영재 대표

66  
제조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IPO를 달성하는 날까지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99

박영재 대표는 유년 시절부터 무일푼으로 기업을 이루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를 뛰어넘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동년배 친구들이 학업에 집중할 때 경영서적을 탐구하며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졌다고 한다. 아버지의 잘 나가던 회사가 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 온 박 대표는 기업의 규모나 매출이 좋은 기업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정넘치는 구성원들이 모여 뜻을 마음껏 펼치는 장이 바로 기업이며, 좋은 기업가는 그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업가의 역할이자 사명으로 생각한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한 상영마그네트도 어느덧 4명의 팀원과 함께하면서 올해 성장할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그들이 날개를 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목표라고 한다.

**스타트업에서 IPO를 성공하는 기업을 꿈꾸며**

마그네틱 장치는 그동안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특별한 진보 없이 정체되어왔다. 상영마그네트는 물류 이송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 마그네틱 장치를 보다 스마트하게 전환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동작 패턴을 분석하여 사고를 감지하고 예측 할 수 있는 기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상영마그네트 만이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이송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스템사로 성장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의 제조를 위한 설비 혹은 장치는 한번 현장에 설치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활용되어 지기 때문에 신중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영마그네트는 향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정부출연원에서 검증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자신들의 제품을 통해 변화될 스마트한 제조 공정을 꿈꾸며 제조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IPO를 달성하는 날까지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 갈 것이다. 🚀



Do you  
Know  
MZ?



MZ세대란?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개념들이 새롭게 떠오르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많은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MZ세대'이다.

MZ세대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도쿄올림픽부터였다. 올림픽 성적에 연연하기보다 MZ세대가 보여준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를 즐기 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 중반생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Z세대를 합하여 MZ 세대라 부른다.



MZ세대의 주된 특징으로는 모바일에 특화된 세대라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MZ세대가 개인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 하고, 각종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는 집단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으로 한다. 과거에는 직장, 모임, 단체에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 다면, MZ세대는 자신의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한다. 최신 트렌드에 매우 민감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소비할 때도 가격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중시한다. 이러한 성향은 MZ세대가 다양한 경험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긱워커(Gig worker) 열풍

과거에는 한 번 취업하면 한 곳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다니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특정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싶어 하는 MZ세대의 성향과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기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긱워커(Gig worker) 형태의 근로 방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긱워커'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이르는 말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달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근로 형태이다. 긱워커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일반인 음식배달 서비스

배민 커넥트 근로자 수는 1년 새 1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 하는 쿠팡 플렉스의 가입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 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가 220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는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신의 생활을 찾는 MZ세대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MZ세대가 우리 사회에 또 어떤 다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MZ세대 신조어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다음 중 신조어와 해석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킹리적갓심: 합리적인의심
- ② 갓생: 갓(GOD)과 인생의 합성어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
- ③ 무지성: 생각 없이 행동하다
- ④ -꾸: '어떤 것을 꾸꾸다'의 줄임말

Q2. MZ세대 대화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는?

A: 이런건 어떻게 만들어야해?  
B: \_\_\_\_\_해야지

- ① 알잘딱깔센                      ② 알잘쓸알센
- ③ 알잘또깔센                      ④ 알뚝쓸깔센

Q3.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일컫는 말은?

- ① 스스로                              ② 자불재
- ③ 스불재                              ④ 스불앙

3개 이상 맞췄다면 MZ세대의 가까워질수 있다!

- A1. ④ - 꾸: ○○을 꾸미다  
\* 근꾸: 근육 꾸미기(운동), 뇌꾸: 뇌 꾸미기(공부)  
위꾸: 위장 꾸미기 등(맛있는 음식)
- A2. ①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 A3. ③ 스불재: 스스로 불러온 재앙
- A4. ② 씹가능: 무조건 할 수 있다

Q4. '무조건 할 수 있다'를 일컫는 말은?

- ① 꼭가능                              ② 씹가능
- ③ 풀가능                              ④ 무가능

Q5. 다음 중 신조어 해석이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 ① 혼코노: 혼자 키피먹지 않는다
- ② 명칭비용: 부주의로 발생한 낭비
- ③ 찐텐: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려고 행동 하는 것
- ④ 사바사: 사이즈 바이 사이즈 (Size by Size)

Q6. MZ세대 대화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는?

A: 밥 먹었으니까 이제 디저트 먹고 가는 길에 호떡 사먹자!  
B: 너 진짜 \_\_\_\_\_하구나

- ① 돼지가하다                      ② 돼지도하다
- ③ 돼지도답다                      ④ 돼지런하다

- A5. ② 명칭비용: 부주의로 발생한 낭비  
\*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다'의 줄임말  
\* 찐텐: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  
\* 사바사: 사람 by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 (Case by Case)를 활용
- A6. ④ 돼지런하다: 돼지+부지런함. 먹을때 부지런하다



# 기업인을 위한 2022년 경제 키워드

글\_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 1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만이 강화되면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가 높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되었다.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점은 사실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처벌에 중점을 둔 제도 시행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기업들도 새해부터는 작업 환경의 주의를 안전에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중점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업주에게는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예방 #사업주 책임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지역기업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2 스타트업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 초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전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용어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제2벤처붐'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이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였고, 2016년 2개사에 불과했던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2021년 7월 기준 15개사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트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와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는 O2O 플랫폼, 비대면 쇼핑 등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들에게 투자의 영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내부 자원을 공유하고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조달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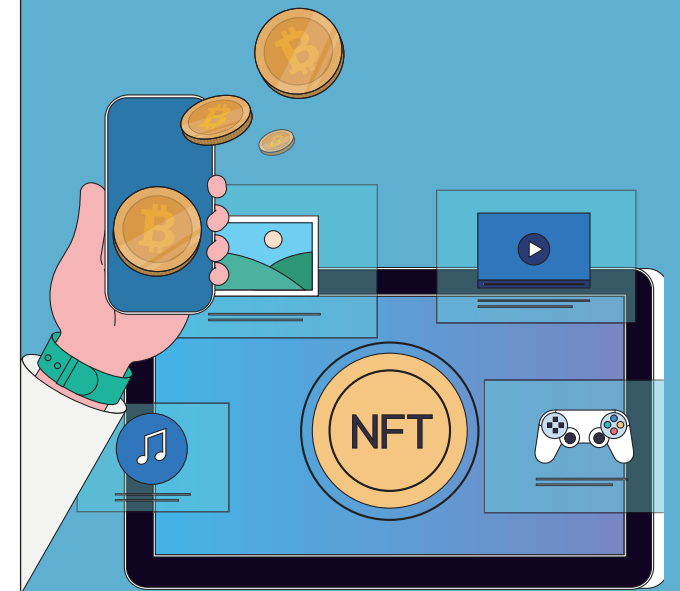
#센텀시티, 문현금융단지 창업 인프라 형성  
#북항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유치  
#부산기업도 오픈이노베이션 활용 #사업다각화 기회



## 3 블록체인

P2E(Play To 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교환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된다. 최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게임 업계에서 선보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이 성공을 거두면서 암호화폐는 산업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게임 업계에서만 일어난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인증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디지털 저작물에 자산 가치를 부여했다. 예술 업계에서는 NFT를 활용해 디지털 파일로 된 미술작품, 음악, 동영상을 거래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을 가속화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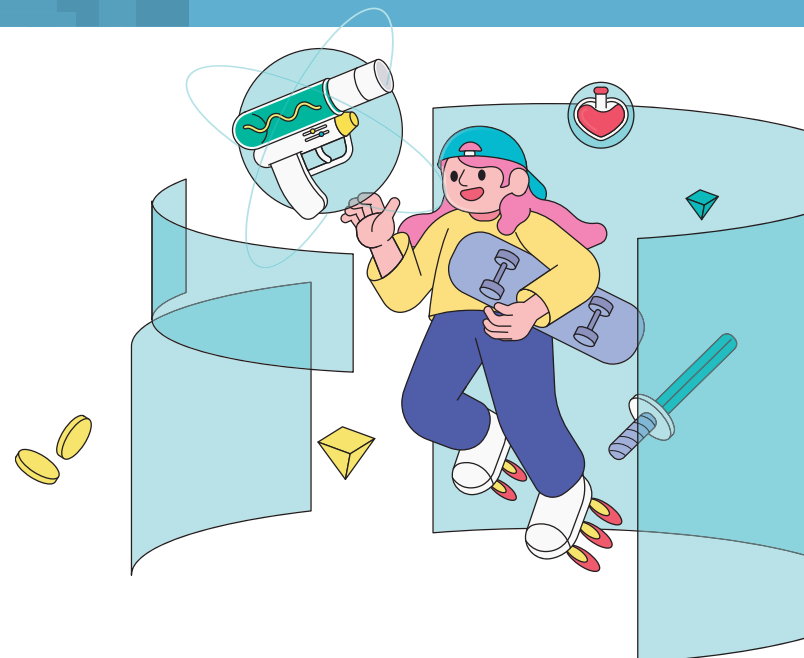
#부산블록체인 특구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부여 'NFT'  
#블록체인 진흥기구 부산 유치  
#블록체인 산업&기업 육성



## 4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 "2020년대는 메타버스의 시대"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경험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어로 가상세계와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의 연장선에 있으며 가상공간의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 및 경제활동을 하여 자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SNS와 같은 '라이프로그', 현실 세계와 결합한 정보를 보여주는 '증강현실',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를 통한 '거울 세계', 또 다른 공간을 구현하는 '가상 세계'까지 모두 메타버스에 해당한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세계가 열광하는 만큼 지역기업들도 비즈니스와 결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의 디지털화 '라이프 로깅'  
#현실과 가상의 결합 '증강현실'  
#가상공간 분신 '아바타'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177조  
#기업 비즈니스와 결합





# EU Taxonomy 기후 위임법률 승인

EU Taxonomy는 친환경 사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이다. 2020년 발표된 EU Taxonomy 규정은 6가지 환경 목표와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판단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Taxonomy 규정의 6개 환경 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한 기후 위임법률을 승인했다. 나머지 4개 환경 목표에 대한 정의는 2022년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법률 승인으로 2022년 1월부터 비재무정보 의무공개 대상 기업들은 전체 매출과 투자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친환경으로 분류된 사업이 EU Taxonomy의 4가지 판단기준까지 만족하는지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기후 위임법률은 운송, 에너지, 제조 등의 산업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 산업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된 사업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사업이다. 다만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운송 수단도 친환경으로 인정된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이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경우 과도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 1월중에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EU Taxonomy 포함 여부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사업이나 투자가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Taxonomy의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한 기후 위임법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 등은 매출 및 투자가 EU Taxonomy에 포함되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 EU Taxonomy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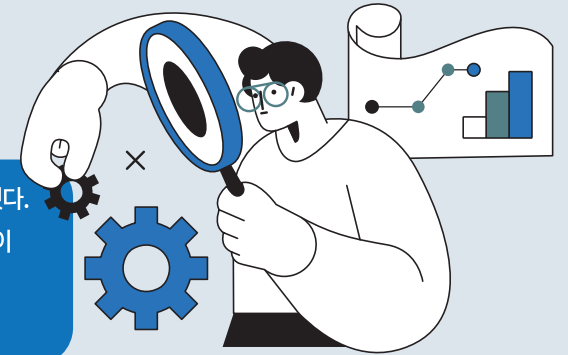
### ✓ 환경 목표

- ① 기후변화 완화
- ② 기후변화 적응
-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 ✓ 판단 기준

-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등
- ④ 경제활동별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

# K-ESG 가이드라인 특징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들의 핵심지표를 반영하고 있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은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국내외 13개 평가 및 공시 관련 기관의 지표와 측정 항목을 분석하여 핵심·공통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4개 영역, 61개 항목을 통해 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개 영역, 27개 항목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시 영역에서는 5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공시의 형식, 내용 그리고 검증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업들은 ESG 활동과 성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적당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외부기관의 검증 등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 영역의 경우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 용수 및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등 17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감축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에 관한 내용도 점검 대상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지역사회 등을 범주화하는 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등을 노동관련 진단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성 구성원 비율과 장애인 고용률은 다양성 및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이다. 협력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배구조 영역의 경우 이사회 구성과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등과 관련한 17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외이사 비율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의결권 행사 시스템, 배당정책 등을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K-ESG 가이드라인 구성

### ✓ 정보공시(5)

- 정보공시 형식
-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 정보공시 내용
- 정보공시 검증

### ✓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 온실가스 배출
- 용수 및 에너지 사용
-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비율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 환경관련 법규 위반 등

### ✓ 사회(22)

- 노동(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등)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산업안전(산업재해율 등)
- 인권정책 수립 및 리스크 평가
- 동반성장(협력사 ESG 지원 등)
- 지역사회(전략적 사회공헌 등)

### ✓ 지배구조(17)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 사외이사 비율
- 이사회 출석률 등
- 주주권리(배당정책 등)
- 윤리경영
- 감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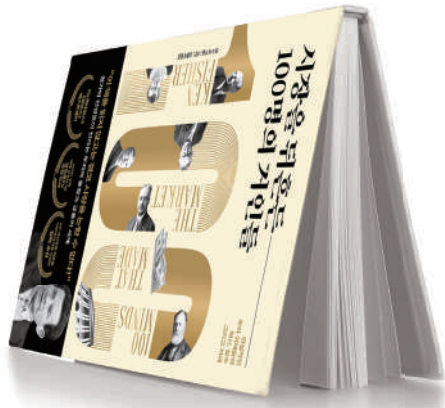
CEO를 위한

#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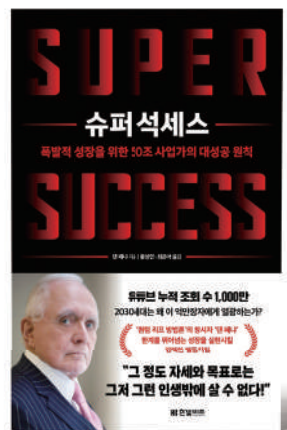
### 01 시장을 뒤흔든 100명의 거인들 켄 피셔 | 페이지2 |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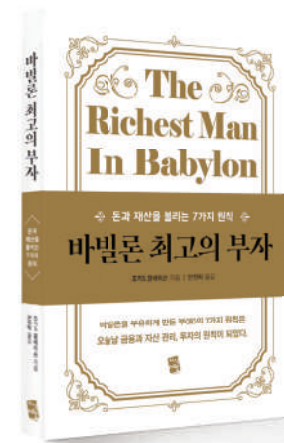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금융의 세계에 뛰어든 수많은 참여자는 혁신, 실수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추문을 통해 지금의 월스트리트를 만들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겸 피셔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이자 33년 동안 《포브스》에 칼럼을 연재한 칼럼니스트 켄 피셔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월스트리트를 만든 100명의 인물을 선발하여 그들의 업적, 사진, 사생활 등을 매력적인 문체로 풀어냈다. 그가 선정한 100명이 모두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부터 언론인, 사기범, 투기꾼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구성된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금융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이들의 짧은 전기를 통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 02 슈퍼 석세스 댄 페냐 | 한빛비즈 | 25,000원

여기, 성공을 위한 열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한 남자가 있다. 자신만의 뚜렷한 원칙을 가진 그는 9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5천억 원의 자산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시킨 이력을 갖고 있다. '1조 달러의 사나이'라는 기업가적 평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멘토인 그가 이 불황의 시기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댄 페냐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사람이자 세계적인 비즈니스 성공 코치다. 그의 유튜브 영상이 지금 2030 세대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를 역설하는 그의 영상은 누적 조회 수가 1,000만에 달한다. 책은 '고성과'와 '대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명한다. 댄 페냐는 이를 '퀀텀 리프 어드밴티지'라고 부른다. 드림팀을 만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법 등이 담겼다. 1999년 초판이 출간됐지만, 댄 페냐의 명료한 성장 원칙은 경제 위기가 고조된 지금 더욱 유효하다. 실천 가이드 중 '페냐이즘'이라고 명명된 113개의 지침만 읽어도 책값이 아깝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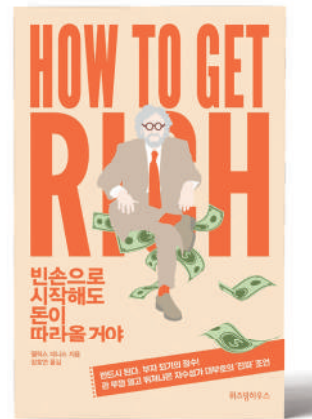
### 03 바빌론 최고의 부자 조지S. 클레이슨 | 지식여행 | 11,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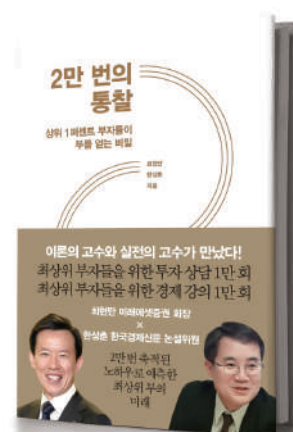
이 책은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들려주는 '재산과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고대 바빌론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기록에서 그들의 부유함에 대한 역사와 지혜를 알 수 있다. 바빌론에는 수많은 부자가 살았고, 도시는 화려했고 물자는 늘 풍부했다. 이 도시는 어떻게 부를 축적했을까? 바빌론 시민들은 '돈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지혜인 '돈과 재산을 불리는 7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21세기를 사는 당신의 지갑도 살찌울 수 있다. 오늘날 금융과 자산관리, 투자 업계는 근본적으로 이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테크의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 04 빈손으로 시작해도 돈이 따라올 거야 펠릭스 데니스 | 위즈덤하우스 | 16,000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리처드 브랜슨과 같은 해외의 대부호부터 서정진, 김범수, 김택진, 이혜진 등 국내 최고의 부자들이 부를 이룬 비결은 투자나 재테크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소유해서 부자가 되었다. 나의 사업을 일으키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일까? 《빈손으로 시작해도 돈이 따라올 거야》의 저자 펠릭스 데니스는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무일푼 히피였지만 영국의 언론 재벌로 우뚝 섰다. 이 책에는 무일푼 히피가 최고 부자가 되기까지 겪은 여정과 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운이나 용기, 실천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시도와 실패를 통해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거의 죽을 직전까지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명하게 피해야. 이 책은 앞서간 대부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실패를 줄이고 확실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 05 2만 번의 통찰 최현만,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 | 20,000원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을 대상으로 1만 회 이상 영업해온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을 대상으로 1만 회 이상 경제 강의를 해온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2만 번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부자들의 돈 공부에 관해 이야기한다. 한국 경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부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를 이루는 힌트를 제공하고, 부자들만이 모여 프라이빗하게 듣는 경제 강의를 경기 예측/주식/부동산/외화·환율/화폐 분야로 정리해서 들려준다. 두 고수가 밝히는 부자들의 투자 비밀은 무엇일까? 저자들이 말하는 '여섯 가지 통찰력'에 그 답이 있다.



### 부산상공회의소 신규 홈페이지 오픈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회원기업과의 온라인 소통과 편의 기능을 확충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부산상의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산상공회의소 스타트업 데이 99°C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12월 3일(금)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8개사가 지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IR(기업소개)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데이 99°C’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타트업 8개사는 IR스테이지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에게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는 12월 2일(목)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하여 지역상공인들과 기업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들이 당면한 각종 세제 관련 주요 기업애로사항 9건을 건의하였다.



### (주)동원개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

(주)동원개발(회장 장복만)은 12월 7일(화) 양산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달하였다. 동원개발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4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 2021부산체육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

부산광역시 체육회(회장 장인화)는 12월 9일(목) 부산시 초·중학교 운동부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2021 부산체육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우수선수 장학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8,000만 원 상당의 훈련 용품을 초·중학교 운동부(15개)팀에 지원하였다.



### (주)골든블루 씬씬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주)골든블루(회장 박용수)는 지난 12월 23일(목)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의 ‘씬씬이가 바른기업’ 릴레이 캠페인 2호로 참여하였다. 씬씬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이다.



### 한국해양대-파나시아 대학 발전기금 전달 및 업무협약 체결

(주)파나시아(대표이사 이수태)는 12월 21일(화) 한국해양대학교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공동 개발 연구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하여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한국해양대에 매년 5,000만원 씩 10년간 총 5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 제19회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주)태광이 운영하는 매천장학재단(이사장 윤성덕)이 12월 24일(금) 부산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19회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전달식을 통해 매천장학재단은 부산지역의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22명 총 76명에게 장학과 장학금 1억 2,846만 원을 지원하였다.





(주)그린조이 최순환 회장  
명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 취임

(주)그린조이의 최순환 회장이 12월 28일(화) 부산 기장군 명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명례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155만1000㎡ 부지에 80개 회원사와 30여 개 임차사가 입주해 있으며, 그린조이도 지난 2017년 본사와 최첨단 물류기지를 명례산단으로 이전하였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취약계층 아동 주거환경 개선 후원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박만일)는 12월 30일(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 사하구 거주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는 2020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지원재단을 통해 주거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주)동화엔텍 2022년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주)동화엔텍(대표 김동건)은 1월 10일(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에어부산, 커피 전문 브랜드 ‘모모스커피’와  
콜라보 상품 출시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1월 11일(화) 지역의 스페셜티 커피 유명 브랜드인 ‘모모스커피’와 협업을 통해 부산 드립백 커피와 두 브랜드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담은 배지 2종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 상품은 에어부산 로고 스티커 ‘샵 에어부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시무식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 3일(월) 2022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산 경제의 새로운 비상을 만들어내자는 목표를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주)프린테크 부산시교육청에  
교육기부금 1,000만 원 전달

(주)프린테크(회장 노길용)는 부산시교육청에 교육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1월 5일(수) 밝혔다. 프린테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사랑나눔’ 활동에 지속해서 동참하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 개최

부산 지역의 수소 관련 기업들이 1월 11일(화) 부산지역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참여기업은 파나시아, 코렌스, 금양, 동화엔텍을 비롯한 18개 기업이며,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와 조용국 코렌스 회장이 공동 회장을 맡는다.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 동명대에  
Do-ing 인재육성기금 1억 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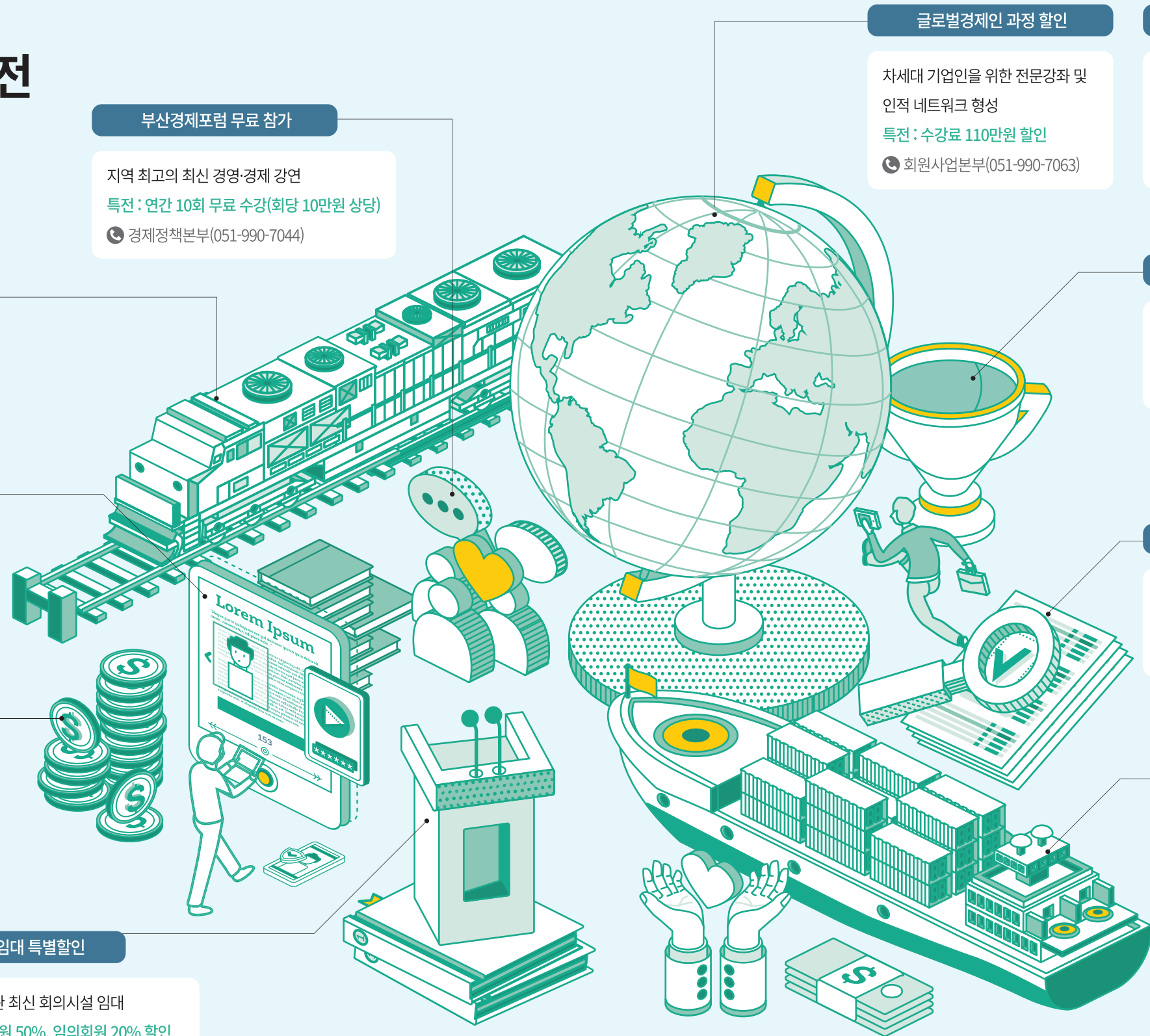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이 1월 18일(화) 동명대에 Do-ing 인재육성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하였다. 양재생 회장은 “한국 최초의 3無(무학년-무학점-무티칭) Do-ing-체험형 대학으로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교육을 펼치고 있는 동명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10대 특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회원기업을 위한 핵심 서비스들을 소개합니다



### 서울역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이용

서울역사내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특전: 회의 및 사무, 휴게공간 무료 제공  
☎ 회원사업본부(051-990-7064)

### 회원기업 언론 홍보 지원

기업 신사업 추진 및 신제품 출시 홍보 지원  
특전: 부산상의 출입기자실 네트워크 통한  
언론홍보 지원  
☎ 기획홍보실(051-990-7022)

### 비즈니스 실무 강좌 특별할인

최신 비즈니스 실무교육 및 맞춤형문교육 제공  
특전: 비즈니스 실무 강좌 50% 할인,  
맞춤방문교육(50만원 상당) 무료 제공  
☎ 회원사업본부(051-990-7065)

### 회의실 임대 특별할인

부산상의 회관 최신 회의시설 임대  
특전: 당연회원 50%, 임의회원 20% 할인  
☎ 경영지원본부(051-990-7150)

### 부산경제포럼 무료 참가

지역 최고의 최신 경영·경제 강연  
특전: 연간 10회 무료 수강(회당 10만원 상당)  
☎ 경제정책본부(051-990-7044)

### 글로벌경제인 과정 할인

차세대 기업인을 위한 전문강좌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특전: 수강료 110만원 할인  
☎ 회원사업본부(051-990-7063)

###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박람회 및 마케팅 사업 지원  
특전: 해외 박람회 참가비, 물류비, 마케팅비,  
바이어 발굴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  
☎ 회원사업본부(051-990-7064)

### 회원기업 임직원 표창

회원기업 임직원 사기양양 위한 표창 지원  
특전: 부산상의 회장 명의 표창 및 부상 제공  
☎ 회원사업본부(051-990-7074)

### 「주간 부산상의 Brief」 제공

최신 경제이슈, 경영 트렌드 정보 발송  
특전: 매주 부산상의 Brief 무료 문자 제공  
☎ 경제정책본부(051-990-7045)

### 무역 인증 수수료 할인

각종 무역 관련 서류 발급 할인  
특전: 무역관계 서명등록 및  
원산지증명(C/O) 무료발급,  
ATA까르네 88,000원 할인 제공  
☎ 회원사업본부(051-990-7111)



즐거로운 회원생활

# 부산상공회의소 쿠폰북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 혜택을 더 즐겁게 똑똑하게 누리보세요!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부산경제포럼 연간 10회 무료수강



부산상의 의원 및 회원사 임원, 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고급 경제·경영 조찬강연 제공 (연간 10회 무료수강, 호텔 조찬 포함)

### 글로벌 경제인 과정 할인 110만원 할인



미래 지역 경제계를 이끌어갈 기업인을 대상으로 CEO양성 프로그램 회원기업 수강료 110만원 할인

### 부산상공회의소 화상 회의실 무료 이용



원격회의 및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화상회의실 무료 제공(부산상의 회관 4층)

### 서울역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 이용



부산·울산·경남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서울역사내(4층) 비즈니스 라운지 시설 무료제공

### 기업 맞춤형 방문교육 무료 지원



법정의무 교육을 포함한 경영·직장문화·교양강좌 등 전문 강사의 무료 방문교육 지원 (당연회원사 방문 교육비 전액지원)

### 비즈니스 실무 강좌 할인 수강료 50% 할인



회원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세무·회계·인사·노무 분야의 실무 교육 할인제공(수강료 50% 할인)

### 부산상공회의소 명지어린이집 보육 지원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의 근로자에게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우수한 보육기회 제공

###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비 할인



부산상공회의소와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특별 할인가로 면허취득 기회 제공(단체신청시(10인이상) 교육비 할인)

### 종합직무능력검사 K-TEST 최대 50% 할인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 선발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직무능력을 진단하는 서비스 제공 (종합직무능력검사비 30~50% 할인)

### 회원기업 기념행사 포상 지원



회원기업의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부산상의 회장 명의 표창 및 부상 전달

### 회원기업 의료지원 서비스 최대 20% 할인



지역 주요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기업 임직원과 가족의 종합검진료 할인 제공(10~20%)

###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대관 최대 50% 할인



부산상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상의 회관 내 최신 회의시설의 요금할인 (당연회원: 50%, 임의/특별회원: 20%)

### 무역인증 서류발급 지원 수수료 할인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관계 서명등록 및 원산지증명(C/O) 무료발급, ATA까르네 발급수수료 할인

### 회원기업 사업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지원



회원기업의 신사업 추진, 신제품 출시 등 홍보가 필요할 때 부산상의 출입기자실 네트워크를 통한 언론홍보 지원

### 지역기업의 인재채용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 제조물(PL) 책임 보험료 최대 100만원 할인



부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PL(제조물책임) 보험료 40% 할인제공(최대 100만원)



# 부산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안내



**사업기간** 2021. 12. ~ (별도 종료 안내 시 까지)

**사업목적** 지역기업 구인수요 중심 기술교육훈련 수료 전문인력 일자리 알선·취업 지원

- ▶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 미래직업전문학교, 새동아직업전문학교,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부산기장직업학교, 센텀직업전문학교, 효성직업전문학교, 양산직업학교 등 9개 직업교육기관과 전문인력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지원내용** 지역기업 구인 및 기술전문인력 구직 POOL을 통한 구직자 알선·상시매칭·일자리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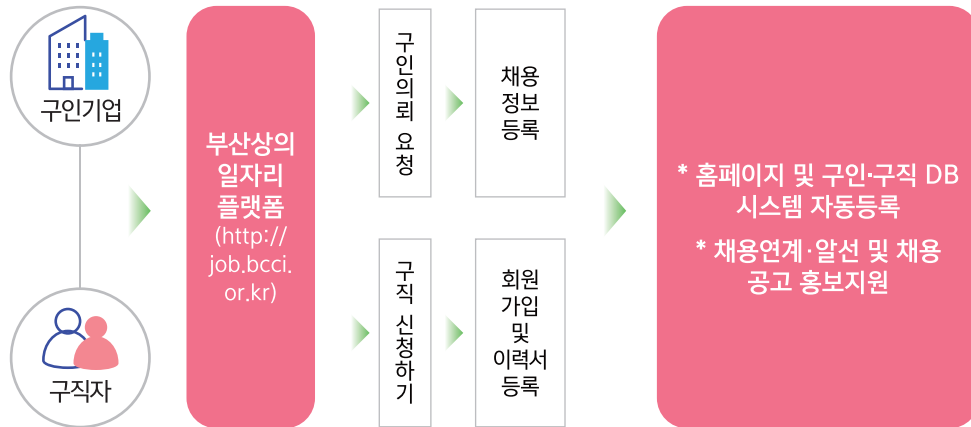
**채용공고 홍보 및 구직자 채용연계·알선 지원**

- ▶ 부산상의 일자리 플랫폼은 부산 주력업종 관련 기술교육훈련 수료생 등 전문인력을 등록·알선·매칭지원

**부산상의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 ▶ 구인기업이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전문인력 채용 시, 각종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추진  
\*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모집 中

**신청방법** 일자리플랫폼 URL: <http://job.bcci.or.kr>



#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도전합니다

개최기간 | 2030. 5월~10월

개최장소 |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 약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 61조원

일자리창출 | 50만명





#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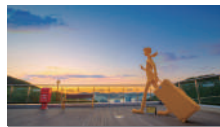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너 어드벤처



달팽이가든



어린왕자

##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룡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